# 가자 명문대, 폐허 속 배움 이어간다…2년만 수업 재개

#### 학생들 공습에 파괴된 캠퍼스 복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고 명문인 가자이슬 람대학(IUG)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2년 만에 대 면 수업을 재개했다.

지난달 30일 (현지시간) 튀르키예 공영 영어방송 TRT월드와 스페인 EFE 통신에 따르면, 가자이슬람대학은 이스라엘이 공습이 산발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날학기를 시작했다.

대학은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면 수업이 재개됐음을 알리고, 학생들이 전쟁으로 크게 훼손된 캠퍼스로 돌아와 수업받는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아사드 유세프 아사드 대학 이사회 의장은 튀르키예 언론과 인터뷰에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는 학살이 남긴 비극과 잔혹함에 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학부 여대생인 말락 알모카야드는 "여기 있을 수 있어 기쁘다. 우리는 모두 계속해서 배울



2년 만에 대면 수업을 재개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고 명문인 가자이슬람대학(IUG)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 기쁨, 영광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1978년 설립된 이 대학은 가자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망 높은 대학으로 평가받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023년 10월7 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 전 이 대학은 의학

한 저택의 매각 과

정에서 우연히 발

아카데미 화가 윌

리암 부그로의 후

손들이 상속 재산

을 정리하던 중 그

19세기 프랑스

견됐다.

과 공학을 중심으로 하는 11개 학부에 약 2만 명 이 재학 중이었다.

하지만 전쟁으로 학생들이 피란을 떠나면서 수업이 중단됐고, 지난 2년간 온라인 수업만 제 한적으로 이뤄졌다. 전쟁 기간 원격 학습으로 졸 업한 학생은 약 4천명이다.

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시작했고, 수업 전면 재 개를 위해 교육 당국과 협의중이다.

가자시티에 있는 캠퍼스는 이스라엘의 공습 으로 크게 파괴된 상태다.

수업할만한 건물이 몇 개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는 집을 잃은 수백 가구가 여전히 피란처로 이용하고 있다.

가자 내 학교 대부분은 이번 전쟁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가자 내 고등 교육 건물 564개 중 563개 (93%)는 전면적인 재건이 필요하다.

전쟁 중 사망한 학생은 1만8천639명, 교직원은 7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일본도 인플루엔자 초비상 환자수 급증 학급 폐쇄 속출

#### 독감 환자수 14주 연속 증가

일본에서도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 하면서 감염 학생 증가로 학급을 폐쇄하는 학교 가 속출하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집계 결과 지난달 17-23일 한 주간 독감 환자 수는 조 사 대상 병원 평균 51.1명이었다. 이는 14주 연속 증가한 수치다.

도쿄미나토구에 있는 한 병원에는 지난달 10-1 는 것이다. 6일 한 주간 진료한 독감 환자가 100명을 넘었다. 학급 폐석

이 병원 원장은 "한번 독감에 걸린 환자도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안 한 분은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독감 환자가 폭증하며 학교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17-23일 감염 학생 증가로 일부 학급을 폐쇄한 어린이집이나 유치 원, 초중고교는 총 6천32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의 24배에 달했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말 2명을 둔 42세 여성 회사원은 "이렇게 빨리, 많은 학급이 폐쇄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여성에 따르면 5학년생 딸이 다니는 학급이

지난달 중순 4일간 폐쇄됐다. 이 여성은 재택근 무와 유급휴가를 이용해 딸을 돌봐야 했다.

2학년생인 둘째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그다음 주부터 독감 발병으로 폐쇄된 학급이 있어서 예정됐던 소풍이 취소됐다.

이 여성은 "학급 폐쇄 기준도 오락가락한다" 고 했다. 둘째 딸이 속한 2학년에서 폐쇄된 반은 결석자가 6명이었다. 그러나 딸이 속한 반에는 9명이 결석한 날도 있었는데 폐쇄하지 않았다 는 건이다.

학급 폐쇄나 학년 전체 폐쇄 등 학교의 임시 휴업은 학교보건안전법에 근거한 감염병 예방 조치다. 지자체 등 학교 설립자가 결정하게 돼 있지만 학교장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학교보건안전법에도 명확한 폐쇄 기준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한 학급에서 독감으로 결석한 인원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도 도쿄도는 20% 정도를, 오사카부는 15%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등차이가 있다.

니가타대 사이토 레이코 교수(공중위생학) 는 "독감 유행 초기 단계에 학급 폐쇄를 하면 효 과도 높다. 독감 대유행을 막는 데도 필요한 조 치"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400년간 행방 묘연했던 루벤스 작품, 경매서 50억원 낙찰

### 1613년 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플랑드르 출신 화가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작품이 30일(현지시간) 프랑스의 한 경매에서 수수료를 포함해 약 300 만유로(약50억원)에 낙찰됐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베르사 유의 오스나 경매장에서 루벤스가 그린 '십자 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105.5×72.5cm·사진)가 200만유로에 낙찰됐다.

이 작품은 루벤스가 1613년 그린 것으로, 이후 행방이 묘연했다가 지난해 9월 파리 6구에 있는



의 작업실 저택에 서 이 작품을 발견 했다. 이 작품이 어떻게 프랑스에 들어왔는지는 루벤스 연구기관을 통해 진품 인증을 받은 뒤 이날 경매에 출품됐다.

작품을 발견한 오스나 경매사의 대표 장피에 르 오스나는 앞서 르파리지앵에 "바로크 회화 의 시작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루벤스가 전성기 에 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벤스의 작품은 경매에 나올 때마다 수백만 유로에 거래된다.

지난 2023년 1월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는 루벤스의 1609년 작인 '살로메에게 바쳐진세 례자 요한의 머리'가 무려 2천700만 달러(약 390 억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 스페인 총리 관련 부패 의혹 대규모 시위…퇴진 요구

알길이 없다.

### 마드리드 반정부 시위에 수만명 참가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수만 명이 반정부 시위에 나서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퇴진과 조기 총선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제1야당인 국민당이 이날 주도한 반정부 시위에는 국민당 추산 8만명, 정부 추산 4만명이 참여했다.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후 국민당 대표는 산체 스 총리의 정치 스타일을 뜻하는 '산치스모' (sa

등록번호: 2023-광주광산-0025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nchismo)를 비판하며 "산치스모는 정치·경제· 제도·사회·도덕적으로 부패했다. 산치스모는 감옥에 갇혔으며, 정부에서 물러나야 한다"라 고주장했다.

정권 퇴진 시위는 산체스 총리가 가족과 측근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들이 관련된 일련의 부패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 라르면, 제1야당인 국민당이 이날 주도한 반정 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다.

> 산체스 총리의 최측근인 호세 루이스 아발로 스 전 교통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위생 장비를 공급받는 정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뒷돈 을 받은 혐의로 지난주 구속됐다.

대출상품비교

이 사건으로 산체스 총리의 보좌진 여러 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측근인 알바로 가르시아 오르티스 검 찰총장도 정부에 적대적인 스페인 마드리드 주 지사의 남자친구와 관련된 정보를 유출한 혐의 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지난주 사 임했다.

산체스 총리의 부인도 지난 8월 공금 횡령 혐 의로 기소됐고, 산체스 총리의 형 역시 부패 사 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가족과 측근에 대한 이 같은 혐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나, 조기 총선 요구가 나오면서 정국 부담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